

ESG를 통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그 첫 번째 발걸음

ESG 칼럼 / Fight or Flee! 선택의 순간

서베이 Review / ESG 경영의 실제, 기업에게 묻다

부록 / 서베이 리포트 풀 버전

Fight or Flee! 선택의 순간

송치연 팀장 (KMA ESG 경영센터)

기존에 영위해오던 생활양식을, 비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시기들은 항상 있었다.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과 그 후 대두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사회 담론은 차치하더라도, 생애주기별 큰 이벤트들 혹은 주변인들의 기대변화로 인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취해야하는 상황은 개인의 삶속에서도 그리 생소한 일은 아닐 것이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디지털과 피지컬의 통합’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위원회가 생겨나고 정규 교육과정에도 소프트웨어개발역량이 이름을 올릴 만큼 범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일상생활에 꽤나 빠른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들에게는 그 활용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정제되지 못한 채 2021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 바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다.

ESG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의 환경적 영향과 기업 내외부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꽤나 높은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기업과 경영자의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ESG를 특별하게 하는 기저에는 3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의 ESG에 대한 공감과 자본 연관성,
그리고 ESG 자체 포괄성은
오늘날 ESG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이다 ”

첫 번째는 소비자의 ESG에 대한 공감성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가능한 한 좋은 제품/서비스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가성비’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해주는 기업의 제품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불매하는 ‘가치소비’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차지하는 상당 부분은 환경과 사회에 관련된 영역으로 ESG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두 번째는 ESG가 갖는 자본과의 깊은 연관성이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투자사/자들에게 당연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 아이템 자체의 위험 외의 상당수의 리스크를 차단할 가능성으로서 ESG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판단하는 투자 준거로 작용하며 기업에게 강제성 있는 동인이 될 개연성이 높다.

세 번째는 ESG 자체의 포괄성이다. ESG는 개별 기업이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걸친 포괄적 영역이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파트너사의 문제인 것이 증명되면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과거와 달리, 공급망 내 협력사가 문제를 야기한 것임이 명백해도, 그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것 혹은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ESG적으로 동반성장하거나, 파트너십을 종료시켜야 하는 선택의 기로가 가까워왔고, 그 상황이 ESG의 파급력이 되고 있다. 거시적 사회현상을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들, 큰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 주체들만의 관심일 수 있었을 ESG가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된 것이다. 전술한 이유들로, 시대적 조류가 되어가고 있는 ESG를 타고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과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과제 ”

첫째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둘째는 ESG의 명확한 이해와 재해석에 기반한 전사적 변화이다.

ESG의 포괄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급했듯, ESG는 우리 기업이 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이행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 공급망 전반을 들여다보며, 우리 비즈니스의 공급망에는 어떤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파악된 리스크를 중심으로 파트너와의 뜨거운 동반성장을 도모하거나, 냉철한 공급망 재구성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K-ESG지표가 개발 중에 있지만, 기업별로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이 상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해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 직원이 ESG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ESG경영이란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신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내의 안정적인 파트너가 되거나, 소비자의 가치소비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ESG는 다짐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영역이다. 그럴듯한 대외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보이고 공급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실천적인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UN주도의 SDGs, 파리기후협약과 P4G 등 ESG와 맥이 닿는 여러 추진력들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은 초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ESG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싸움을 할 것인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며 피할 것인가를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닥에 있는 막대를 줍는 것과 같아서, 어떤 것을 집을지는 자유이지만 일단 한쪽 끝을 집어 올리면 반대쪽도 따라 올라온다는 우화가 있다. 선택과 결과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막대의 이쪽 끝과 저쪽 끝처럼 이어져있다는 것이다.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싸우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3기가 시작됐고, EU에서는 다음 달, 탄소세 개혁안이 발표된다. 마스크에서는 현장에서 사고의 책임소재, 경영진의 일명 갑질논란 등 기업을 향한 질타가 공감을 얻고 있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조류고, 이탈되면 정상적 경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빠른 선제대응력을 갖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신사업 영역이 될 것이라고도 필자는 확신한다. ESG라는 거대 조류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기업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ESG 경영의 실제, 기업에게 묻다

김민석 소장 (지속가능연구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ESG 용어 뒤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라는 설명을 해야 했지만, 이제 기업관계자에게 ESG는 설명이 필요 없는 보통명사가 된 듯하다. 물론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의 온도차이가 있고, ESG의 구체적인 개념과 실행, 측정, 개선 등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ESG의 뜻 정도는 ESG 전담부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기관의 ESG 세미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ESG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ESG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앞 글자로, 과거에는 재무적인 정보위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 또한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보기 시작하며 사용된 단어이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것이자 동시에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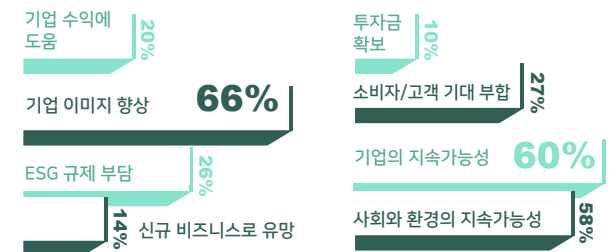
KMA(한국능률협회)는 지난 5월,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와의 설문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ESG 경영의 현황과 향후 ESG 경영의 실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였다. (기간: 5월24일부터 28일, 148명 응답)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질문으로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이유를 물었다(복수응답). 이에 대해 '기업 이미지 향상(66.2%)',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60.1%)',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58.1%)' 라는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응답자중 43.2%가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을 1순위로 뽑은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최근 'ESG 경영'을 과거 CSV(공유가치창출) 등과 비교하며 한때 유행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ESG 경영의 주 목적을 기업 이미지 제고로 삼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ESG 경영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이야기하며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공헌 사업을 ESG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만 봐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ESG를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 이미지 제고는 다양한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하면 기업은 ESG 대신, 쉽게 다른 것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ESG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ESG가 수면으로 떠오른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ESG 워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세 번째로 언급된 응답인 '기업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기업 이미지 제고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SG 경영 도입 의지와 직원들의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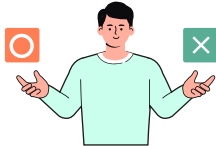
ESG 경영은 특정한 개인 또는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ESG와 관련한 ISO 26000(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표준)과 같은 가이드선나, GRI, TCFD 등 공시기준만 보더라도 매우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기업은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동력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도 있고, 다른 기업은 각 부서단위에서 실행 안을 세우고 관리하기도 하며, 또 다른 곳은 여전히 ESG 경영 도입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곳도 있다.

이번 KM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의 81%는 'ESG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53%의 응답자는 ESG 경영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되는 셈이다.

38%

ESG에 대해 알고 있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8%

ESG에 대해 알고 있지만
도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43%

ESG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도입 해야 한다고 생각

11%

ESG에 대해 잘 모르고,
도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

ESG 경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러면 ESG 경영이 기업내부에 정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42.6%)'를 꼽았고,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변화(40.5%)'가 다음을 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정부정책의 강화'를 꼽았다. 즉 기업의 핵심 주체인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ESG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SG가 단순히 홍보용 문구가 되지 않으려면,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이며, 각 조직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MA 설문 중 'ESG 경영 도입을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전직원 대상의 ESG 교육 필요(28.4%)'를 꼽았다. 다음으로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ESG 컨설팅(20.3%)', '사내 ESG 담당조직 신설 및 전문가 양성/채용(16.2%)', 'ESG 위원회 설치(14.9%)'가 뒤를 이었다.



43%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41%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변화



16%

정부정책(규제 및 인센티브)의
강화

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ESG 경영이 기업내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의지 및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직원 대상의 ESG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질문인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지만 'ESG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은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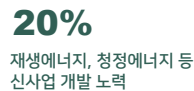
ESG 중 각 영역별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것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올해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글로벌에서도 그린뉴딜 정책 등의 논의가 활발하고, 국가별로 무역규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 못지 않게 사회나 거버넌스 측면의 인권, 노동, 안전,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 기업은 기업인권영향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기업 관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무엇일까?

먼저 환경 영역에는 '현 제품/서비스의 환경성 개선(27.7%)'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신사업 개발노력(20.3%)',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18.2%)', '친환경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14.9%)'가 다음을 이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환경정화 활동하고, 전등 소등하고, 이면지사용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상품과 제품의 친환경성이 우선이며, 친환경적인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 공정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 환경 영역에서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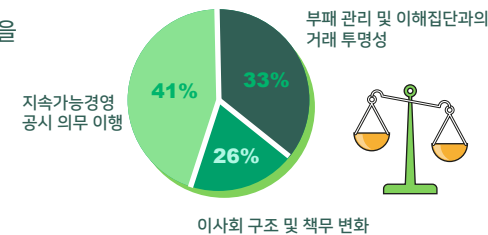


사회 영역은 38.5%의 응답자가 '직장 근로자 건강 및 안전, 고용평등 및 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고, '지역사회 관계 등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6%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공정거래, 상생협력', '고객정보 보호 및 소비자 만족경영'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SG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다양성과 포괄성 등 이슈가 많아지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부패관리 및 이해집단과의 거래투명성(32.4%)', '이사회 구조 및 책무 변화(26.4%)'의순서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이 보고서를 내야한다. 일부에서는 공시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실속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상황이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및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올해 4월 인증기준으로 확정된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관리시스템) 또는 ISO 37001(부패방지 경영관리 시스템) 등의 표준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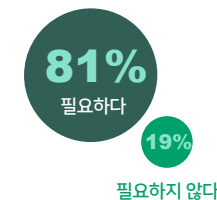
그리고 이사회 구조 및 책무가 변화해야 함을 꼽았는데, 최근 기업들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만들거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사외이사 선정 등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SG 경영을 위한 외부와의 협력 방안

ESG 경영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는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실상은 정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81.1%는 외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협업이 필요한 이유로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ESG 경영의 완만한 도입과 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ESG 경영을 흔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건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사의조언을 듣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PT(개인훈련)를 받는 등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가 가능하다. 광범위한 ESG 경영을 처음부터 기업 내부역량만으로 실행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은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지금까지 ESG 경영 도입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성 확보가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과 임직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절반이 넘는 51.4%의 응답자가 'ESG 경영 배경 및 도입의 필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ESG 평가, 인증 관련 국내의 지표에 대한 이해(15.5%)', '준법, 공정, 반부패, 인권 등 사회적가치 교육(11.5%)'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환경관련 교육,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교육, ESG 연계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무래도 ESG 경영은 조직이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ESG 경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SG 경영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기업과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의지와 계획,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많은 조직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이번 설문에서는 '전문기관의 ESG 기업평가 결과 공표 (26.4%)'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ESG 활동 및 이벤트(23.6%)'를 하는 것, '지속가능보고서 등으로 활동 내용을 공시(19.6%)'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업 자체적으로는 ESG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균형 있게 작성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6%



전문기관의 ESG 기업평가
(MSC I,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결과 공표

지속적인 ESG 활동 및 이벤트 실천 24%

지속가능보고서 등 활동상황 공시 20%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활동으로 실제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의 정답이 있다면 ESG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G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각 기업이 처한 환경과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당장 ESG 평가를 받는 상장사만이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고, 수출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ESG의 완성은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이 작동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ESG 경영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ESG 경영은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ESG 공시, 평가기준만 공부하고 현실과는 다른 모범답변만을 마킹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의 ESG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ESG 경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에서 개선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ESG 경영, 참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소화한 후 표현해 보자. 단지 ESG 경영을 하겠다는 선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ESG 관련 조직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내재화하여 우리조직의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의 건강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업을 진정한 기업시민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

ESG경영 도입 관련 서베이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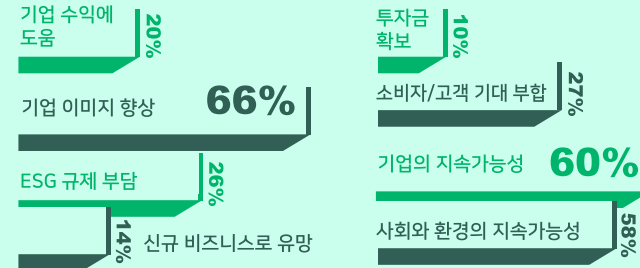


설문 대상: KMA 회원기업 HR 담당자 628명 설문기간: 2021.05.26~28 설문 방법: 온라인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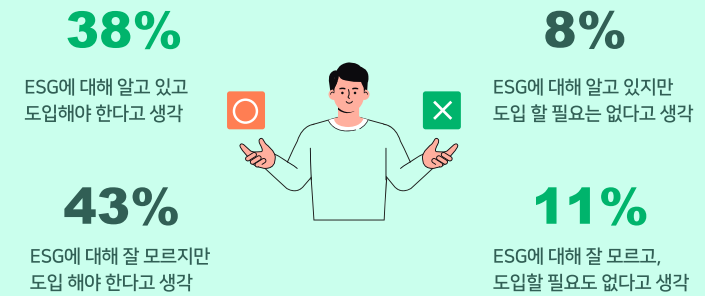
01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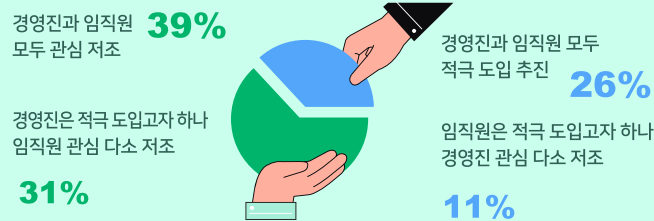
02

귀사 직원들의 ESG인지도와 수용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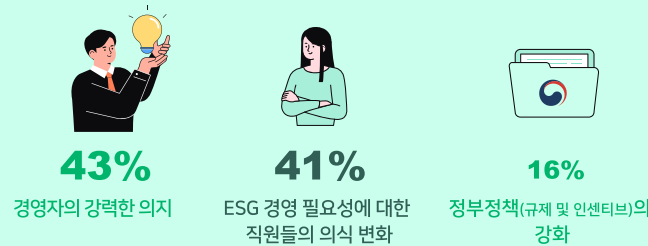
03

현재 귀사의 ESG 경영 도입 의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4

귀사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5

귀사가 ESG 경영 도입을 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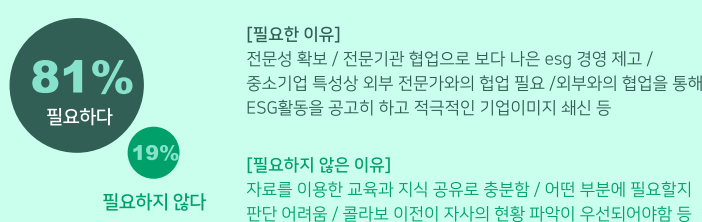
06

ESG 경영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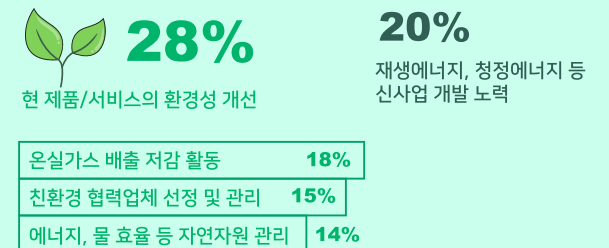
07

귀사의 ESG 경영 정착을 위해 외부와의 협업(오픈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8

(E) 환경분야와 관련해 귀사에 가장 필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SG경영 도입 관련 서베이 리포트



설문 대상: KMA 회원기업 HR 담당자 628명 설문기간: 2021.05.26~28 설문 방법: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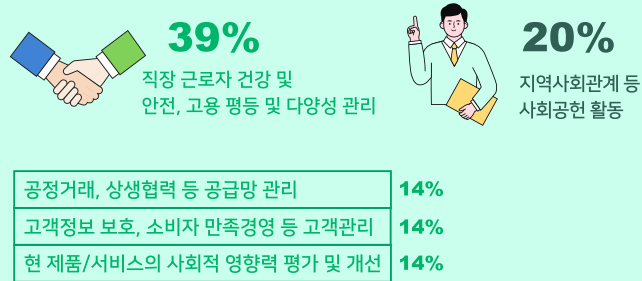
11 ESG경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한다면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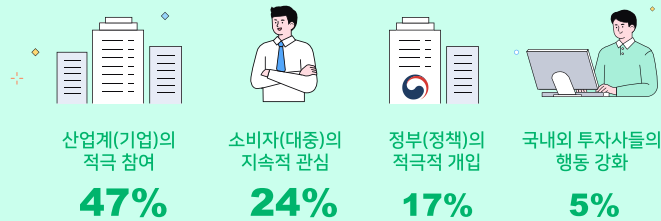
14 공공기관이 환경, 사회적가치, 지배구조 중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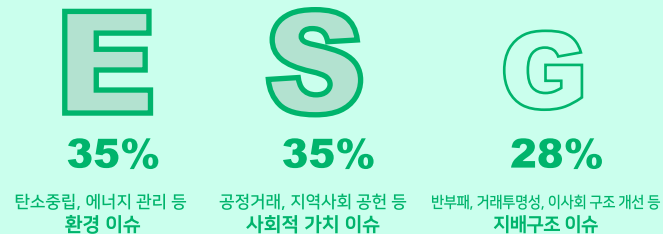
09 (S)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귀사에 가장 필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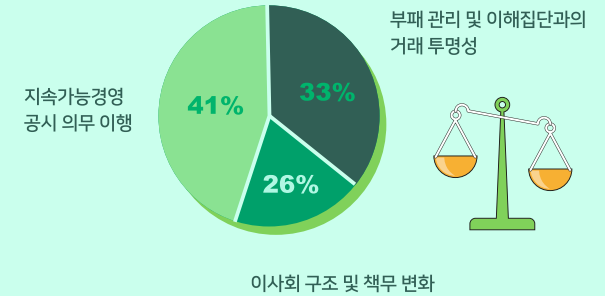
12 국내 기업의 ESG경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민간기업이 환경, 사회적가치, 지배구조 중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10 (G)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귀사에 가장 필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ESG경영 정착을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 ESG라는 트렌드를 유지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좋은 실천방안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 ✓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야할분야로 인식은 하고있지만..어떻게 잘 해야하는지는 모르고있음.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셨으면합니다.
- ✓ 다양한 포럼을 통해서 업체들의 ESG경영에 대한 내용(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ESG경영이 단순 통과외려가 아닌 기업도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문화로 정착 지원.